

##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건설공사 계약체결

【관련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인프라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KBSI’)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포스코이앤씨, 계룡건설, 원건설) 간 체결되었으며, 이로써 '29년 말 구축을 목표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방사광가속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신약, 첨단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초정밀 연구시설이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발생하는 밝은 빛(방사광)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원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초대형 국가 연구 인프라이다.

이번 건설공사는 충청북도 오창테크노폴리스 내 약 31만㎡ 부지에 조성되며 저장링동과 가속기 터널, 빔라인 등 연면적 약 6.9만㎡ 규모의 시설이 들어선다. 방사광가속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초정밀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실험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동 5~400나노미터(nm) 즉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5 수준, 온도 25±0.1℃ 수준의 엄격한 환경 조건을 유지하도록 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약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공사의 안전관리 성과지표 평가를 도입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계약조건에 명문화하는 등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현장 근로자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사고 예방 중심의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인프라혁신과	책임자	과 장	조남규 (044-202-4660)
		담당자	사무관	김해광 (044-202-4664)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능브리핑

